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19.(화) 06:00 < 3.19.(화) 석간 > 배포 2024. 3. 18.(월)

3월에도 수출 플러스 기대

- '24.1~2월 합산 수출 11% 증가, 주력 수출품목의 호실적이 수출 견인
- '24년 제3차 품목담당관 회의개최··· 수출 품목별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흐름이 올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19일(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수출은 '24.1~2월 합산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24.1~2월 +61.4% 증가한 반도체 수출이 올해 정보기술(IT) 전방산업(서버·모바일·PC) 수요 회복과 HBM 등 고부가품목 수요 확대 영향으로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3년 역대 최대 실적(709억 불, +31.1%)을 기록한 자동차 수출은 '24.1~2월에도 114억 불을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1위 실적을 달성, 미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기계 수출은 '24.1~2월 89억 불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미국(제조업 투자 호황), 중동(네옴시티)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수출도 '24.1~2월 +50.9%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21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증가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24.1~2월 수출(억불, %) : (반도체)193.2(+61.4), (자동차)113.7(+7.5), (일반기계)88.9(+7.2), (선박)44.9(+50.9)

강경성 1차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품목을 중심으로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3월에도 수출 증가세와 흑자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 중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도체 1,200억+α 달러, 자동차 750억 달러 등 핵심품목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협력벨트 구축 및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력으로 경제영토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현재 85%)로 확장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 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이 겪는 금융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확대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